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게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 경남중고동창회보

발행·편집인: 鄭昭永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의3  
골든오비스텔 4층 411호  
TEL: (051)245-7551~3, FAX: 245-7550  
인쇄처: 釜山日報社  
在刊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복빌딩 504호  
T: (02)783-0071~2 F: (02)783-0073

# 숙적 14회-15회 첫 대회전

제31회  
기별야구대회  
대진표

## 31회 기별야구 10월 10일 입장식

# 우승 등 상금 시상

## 27개 단일팀 출전 '왕중왕' 희망

대망의 제31회 기별야구대회가 10월 10일(일요일) 경남고구장에서 '영원한 맞수' 제14회-제15회의 첫 명승부 연출을 시작으로 28개 단일팀이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날 오전 10시 입장식에 이어 오픈게임으로 연합 A, B팀 경기(5회전)가 치러진 후 숙적 제14회-15회의 결전이 펼쳐진다. 결승전은 오는 11월 6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연합 A팀은 제3·5·7·9·11·13회로, B팀은 제1·4·6·8·10·12회로 각각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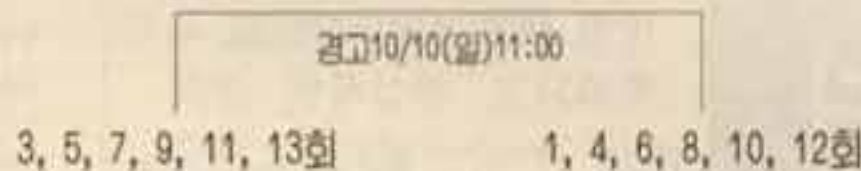
올해 대회부터는 예년의 중년·장년·청년부를 통합, 왕중왕을 뽑는다.

20대와 50대가 대격돌할 행운(?)도 안을 수 있어 묘기백출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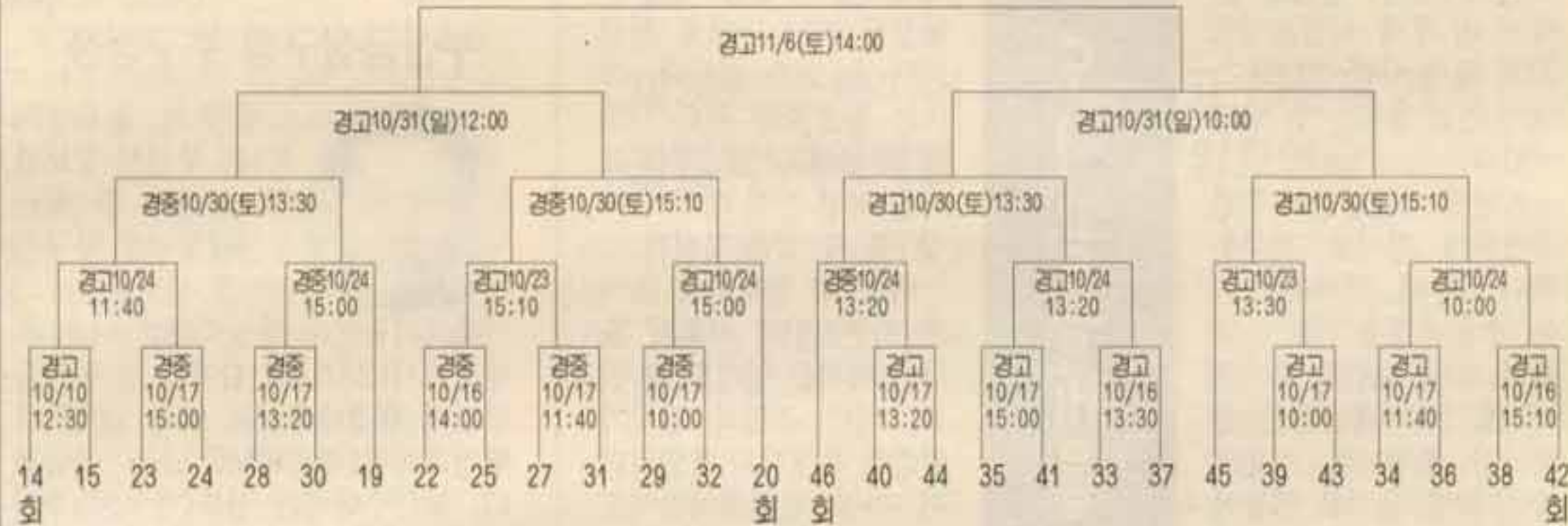
단일팀 경우 '전재하는 노장' 제14회를 비롯, 최선에 제46회까지 모두 28개팀(출전 희망 팀)이 A, B 2개조로 나눠 접전한다. A조는 제14~32회까지, B조는 제33~46회까지 각각 구성돼 황금의 용마기를 노린다.

특히 대회 활성화를 위해 우승 및 준우승팀과 입장식 참가 1~5위에 각각 상금이, 인기가족에게 귀한 상품들이, 각종 개인상이 각각 수여된다. 또 결승전 응원에는 재학생들이 대거 참여해 열기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경기는 전게임 토너먼트 넘다우제

A)연합팀(1게임 5회전·1~13회 구성)



B)단일팀(전게임 7회전·14~46회 출전 \*희망팀 구성)



(콜드게임제 없음)로 단일팀 경우 7회전으로 하고 핸디는 2~3회 1점, 4~5회 2점, 6~7회 3점, 8~9회 4점 등이다. 연장전일 때는 9회전으로 하며 승부를 가리지 못할 때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 새 천년맞이 신년회

## 본부이사회, 내년 2월 초순 개최키로

### 주요사업·행사안 심의

본부동창회 주최 '99용마의 밤' 축제는 예년의 모교 체육관 개최를 지양, 오는 12월 20일 오후 6시 30분 서면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새 천년맞이 신년회는 정기총회와 겸해 열기로 했다.

본부동창회는 9월 9일 오후 6시 30분 부산 중구 부평동 본부회관 14층 '골든스카이뷰페'에서 정소영 회장(6회) 주재로 올해 2차 이사회를 열고 '99용마의 밤' 축제와 정기총회 일정, 제31회 기별야구대회 운영안 등 주요의안을 심의했다(사회 최득호 사무국장·11회).

이사회는 이날 '99용마의 밤' 축제는 오는 12월 20일(월요일) 서면 롯

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고 신년회는 내년 2월 초순 코모도호텔 '총무홀'에서 제37차 정기총회와 겸해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또 제31회 기별야구대회는 오는 10월 10일(일요일) 경남고구장에서 입장식을 거행, 대장정에 들어가는 운영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이밖에 용마대상 후보(개인·동기회·직능회) 추천 방안, 2000년판 총명부 제작, 회보운영방안 등을 의결했다.

특히 회보는 편집위원회 활성화, 발행부수 조정, 발송방법 및 우송료 부담문제, 본부지원 예산 증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의했다. 또 총명부는 편찬위원회 구성과 총무단협의회의 교정지원 등으로 내년 2월 정기총회 전까지 발간하기로 했다.

# 99용마의 밤 12월20일 개최 "서면 롯데호텔서 만남시다"

## 오후 6시30분 '영광 재창출'위해 촉배를

본부는 9월 9일 이사회에서 예년 경우 모교(경남고) 체육관에서 열었던 '용마의 밤' 축제 장소를 모든 동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면 롯데호텔로 옮겨 이날 오후 6시 30분 개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격변의 1999년을 미련없이 마감하는 '99용마의 밤' 축제에 우리 모두 모여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세기 마지막 해 2000년을 새로운 설개로 맞을 준비를 합시다. 그리하여 '용마의 영광'을 재창출하기 위해 다시 뿔 것을 결의합니다.

국내외 동문 여러분, 본부동창회는 화합의 광장으로 자리매김된 '99 용마의 밤' 축제를 오는 12월 20일(월요일) 서면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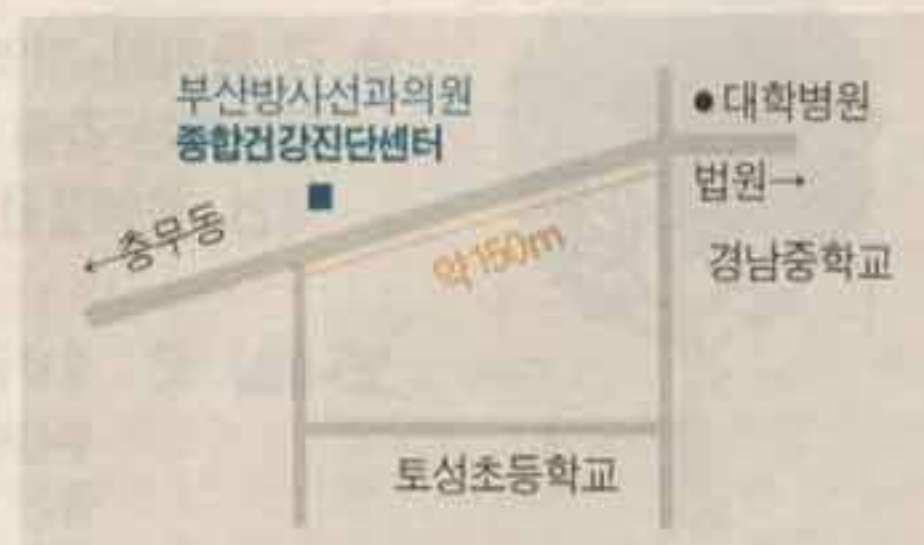


# 부산방사선과 의원 종합건강진단센터

- X-RAY
- CT촬영
- 초음파촬영
- 유방촬영
- 골밀도측정
- 종합검진

원장 章輝烈 (29회/전문의/의학박사)

부산시 서구 초장동 54-3번지 (대학병원에서 총무동 쪽 150m)  
TEL : 256-2200, 247-2200, 247-1117  
FAX : 255-8445



※ 동문가족은 특별히 우대함

시 평

이 윤 택

제25회·극작 연출가



동창회에 다시 연락이 닿고 옛 학우들과 만나게 된 것은 사실 최근의 일이다. 나이 오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러서야 삼십년 전의 기억과 다시 만나게 된 셈이다. 지난해 재경동창회의 '자랑스런 용마상' 수상 소식을 듣고 참 쑥스러운 마음으로 모임에 처음 참석했는데, 거기서 내가 막내격 서열이란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3회 선배부터 선 후배 서열을 따라 내려가다보니, 수상자 중 내가 최연소자였다. 참석자 중에서 내 후배 서열은 26, 27회 두세 사람 정도였고, 내가 만난 동기는 한 명뿐이었다.

지난달 재경동창회 주관 강연회에 연사로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나는 막내 서열을 면하지 못했다. 나를 포함한 동기생과 26, 27회 동문들은 선배들의 분위기에 짓눌려 숨도 크게 못쉬고 귀퉁이에서 밥을 먹었던 셈이다. 그러다보니 동창회 분위기는 자연적으로 풀워 있고 여유있는 증진그룹들의 만찬회장 및 로비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있어 보면 나도 덩달아서 무게가 느껴지고 정말 좋은 학교를 나왔구나 하는 우쭐함도 생긴다.

그러나 반면 이런 분위기에 좀처럼 들어오기 힘든 동문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 자신의 인생 역경을 거슬러가 보더라도 얼마나 거칠고 어려운 세상과의 싸움을 벌여 왔던가. 세상 속에서 악전고투하며 살아가는 동문들에게 모교에 대한 긍지와 그리움은 상당히 큰 힘이 되어 준다. 동창회가 이들 어렵게 살아가는 동문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

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동문들보다 오히려 어렵게 살아가는 동문들에게 동창회란 존재는 더욱 귀중하지 않을까.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 기회를 넓혀주는 방향으로 동창회의 운영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동창회의 구체적인 활동 방향 또한 이런 식으로 구체화되고 현실적인 조직 기구가 준비된다면, 단순한 친목회의 성격에서 진일보하여 강력한 사회 운동성을 지닌 단체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동문들을 위한 사회 보장, 보험, 취업, 자녀 교육을 위한 장학 대책 등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때 동창회의 조직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유니온 체제를 형성할 수 있고, 이런 조합적 연대가 인간적 유대감과 결합되면서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사회적 응집력이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힘 있는 동창회, 빈부간의 격차와 사회적 신분을 뛰어 넘어 또 다른 도시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동창회로 발전했으면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도시공동체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동문들보다 어렵게 살아가는 동문들에게 동창회란 존재는 더욱 귀중한 것

부하고 인간적인 정을 나누었는데, 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사회적 신분과 환경에 따라 동창회 참여자와 비참여자로 나뉘어져야 하는 풍토는 극복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 살아가지만, 동창회란 존재는 우리를 영원한 조건 속에서 만나게 한다. 그 조건은 바로 무조건적인 관계일 것이다.

“용마들이여, 힘을 냅시다”

인천지역동창회 회보 '인천경남' 제5호 발행

인천지역동창회(회장 최재용·11회)는 지난 4월 회보 '인천경남'을 창간한 이래 9월20일자로 제5호를 발행했다.(4×6배판 4쪽·사진)

부평과 부천, 남동용마회 등 단위 지역회 월례모임, 투고, 건강코너, 동문들의 소식을 알 수 있는 '어디서 무엇을', 동문들의 생일과 결혼기념일 등을 축하해주는 '축하합니다' 등의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인천경남'은 일상에 쫓겨 자주 동창회에 참석 못하는 동문들로서는 그나마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양한 소식 정보 듬뿍 담겨 정다운 모임 자부

정기모임을 갖고 동문들과의 우의를 나누고 있다. '인천회'는 동문들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꼼꼼히 챙겨 축하 전보를 보내줌으로써 동창회를 잊지 않고 참석하게 됨은 물론 부인들로부터는 감격(?)내지는 편찬(결혼기념일을 깜빡한 동문들...)을 받는 아이러니를 연출해내고 있다.

'인천회'는 지역동창회의 특성을 살려 재미있고 유익한 동창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천경남'은 재경동창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데 곧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천지역에는 약 2백50여명의 동문들이 있으며, 가까운 지역별로 모임을 갖는 소모임인 부천용마회, 부평용마회, 남동용마회가 매월 1회씩

정영석(24회) 부산금정구청 부구청장



정영석 동문(24회)은 부산시 공보관(국장)재임 중 최근 부산금정구청 부구청장으로 발탁됐다.

한국의국어대 행정학과를 나온 후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한 정 동문은 부산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남가주대 행정대학원(행정학MPA)을 졸업했다. 남가주대에는 정부(총무처)추천 국비장학생으로 유학했다.

정동문은 "공무원이 신뢰를 받으려면 항상 성실 정직해야 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무장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산시 지역경제과장 △허수계 회담담당관 △공무원교육원 교육부장 △시장 비서실장 △공보관 등 역임.



9월15일 신정에서 열린 본부 총무단협의회 회의 모습.

기별야구대회 운영안 확인 28개 단일팀 대진표 추첨

본부 총무단협의회 회의

제31회 기별야구대회 대진표 추첨과 본부동창회 이사회가 의결한 대회 운영계획안 확인을 위한 본부 총무단협의회 회의가 9월15일 오후 6시30분 부산 서구 서대신동 '산정'에서 열렸다.

김수현 회장(5회)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옥윤석 간사장(16회)의 사회로 진행돼 지난 9월9일 본부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제31회 기별야구대회 입장식 경기일 및 장소 폐회식 등 운영안을 확인한 후 대진표를 추첨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동기기 총무 등 49명이 참석했다.

대진표 추첨에서 연합A·B팀은 제1~13회까지, 단일팀은 제14~46회까지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단일

팀 경우 '영원한 맛수'로 불리는 제14회와 제15회가 10월10일 입장식에 이어 치러지는 연합A,B팀 오픈경기 후 환관승부를 가리게 됐다.

기별야구대회 운영안에 따르면 △입장식 10월10일(일요일) 오전 10시 경남고구장 △결승전 11월6일(토요일) 경남고구장으로 각각 정했다. 또 경남중에서는 10월 16, 17, 24, 30일에 경기를 하고 경남고에서는 10월 10, 16, 17, 23, 24, 30, 31일(준결승)과 11월 6일(결승)에 각각 치른다. 특히 예산 경우 우승팀에 30만원, 준우승팀에 20만원, 입장식 최다참가팀에 20만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하게 되며 참가자수가 많은 2~5위까지도 각각 10만원씩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 인기가족상을 신설했고 최우수투수상 등 개인상의 범위도 늘렸다.

용마가족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 ◆ 동문과 가족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 각 동기기·지역동창회·해외지역동창회·직능동창회는 각종 행사와 「어디서 무엇을」, 제언, 문예물을 수시로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 곳 :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오피스텔 4층 411호  
☎ 245-7551~3  
(FAX)245-7550



광고협찬 안내

어려운 시절 힘들게 견뎌나가고 있는 동문기업을 도움시다

- 크기 및 금액  
8cm×24.5cm(40만원), 8cm×12cm(20만원), 8cm×6cm(10만원)
- 내용 :  
·업체소개·주요 취급품목·대표자명(사진 포함)  
·연락처·기타 알리고 싶은 사항
- 문의사항 :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전화(051)245-7551~2

용마자동차매매상사

신평자동차매매업단지내(14호)



중고자동차 매매 전문업체!

안녕하십니까?  
본 상사는 다년간 신차영업에서 다진 Know-How로 새차에서 중고차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Total Market입니다. 최상의 서비스로 동문 선배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대표 최규철(37회)  
과장 고영민(40회)  
과장 최봉재(40회)

부산시 사마구 신평동 370-6  
TEL : 051)294-0055  
FAX : 051)294-0056



대문산서 용마의 기상을 펼친 제20회동기회 부산 서울 대전 동문 가족들이 산행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용마기상 대문산에 펼쳐

## 제20회 부산·서울·대전 동문 1박2일 합동산행

제20회동기회 부산 서울 대전 동문들이 초가를 대문산(877.8m)에 올라 용마의 기상을 펼쳤다. 이공산우회는 9월11~12일 이틀간 대문산에서 부산 서울 대전의 동문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등반대회를 개최했다. 김대원 산우회장이 주재한 이날 등반에는 부산에서 김희장 등 15명이, 대전에서는 산행준비에 애쓴 김찬만 산악회장 등 5명이, 서울에서는 조준섭 백두산악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대전지역회 주최로 열린 11일 전

야제는 대문산 집단시설지구 '낙원산장'에서 열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정담을 나눴다. 뒷날인 12일 산행은 오전 8시 논산 별곡쪽 수락계곡에서 출발, 화랑폭포~금강폭포~220계단~마천대(대문산 정상)~삼선구름다리~완주군쪽 집단시설지구로 내려오는 3시간 반 코스였다. 온천욕으로 피로를 풀 일행은 대전의 유명음식점인 '한밭식당'에서 설렁탕과 수육으로 환송파티를 열고 오후 5시경 내년을 기약하며 각각 부산과 서울로 발길을 돌렸다.

# 용마-청조 모교서 '우정의 백병전'

## 제30회동기회 부산고와 체육대회

초가를 모교 교정은 '용마군단'과 '청조군단'이 연출한 '우정의 백병전'으로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9월12일 제30회동기회는 '영원한 이웃 사촌'인 부산고 제29회 동문들을 경남고구장으로 불러들여 친선체육대회를 열고 끈끈한 정을 나눴다.

이날 9시30분 최기훈회장이 주재한 행사 기념식에는 양교 동문·가족 1백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최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동갑내기 우정을 바탕으로 '용마'와 '청조'의 영원한 발전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부산고 노태무 회장은 답사를 통해 "경남고와 부산고의 동문·가족들은 사회의 어디서 만나더라도 서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양교 동문·가족들은 야구 축구 족구 가족릴레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력을 과시했고 응원전도 뜨거웠다.

일행은 삼겹살구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친교를 더욱 다졌다. 양교 동문·가족들은 기념촬영을 한 후 내년 부산고 초청에 기대를 걸며 산회했다.



부산고 제29회동기회와 우정의 백병전을 펼친 제30회동기회 동문 가족들이 체육대회를 마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힘센 동기회로 거듭나자"

## 제26회 스태미너 별미 즐기고 대동제 개최 클럽회 지역회별 부부동반 '인고연습'

제26회동기회가 장경재 회장이 앞장선 '사철보양탕' 등 스태미너식 즐기기과 대동제, 클럽 및 지역회 등의 알찬 행사로 활성화가 촉진되고 있

다. 제26회는 8월26일 오후 7시30분 부산 동구 초량동 '제주뚝배기'(윤홍석동문 부인 운영)에서 장경재 회장 주재로 월례회를 갖고 △매월 26일 월례회 개최 △동문·가족이 많이 모이는 행사 운영 등 조직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동기회는 앞서 7월 월례회를 7월 26일 부산 중구 부평동 '봉생영양탕'(김효현동문 운영)에서 열고 강창특 식으로 더위를 이겨 동기회 발전에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특히 동기회는 7월17~18일 이틀간 장태산휴양림에서 부산 서울 기타 지역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동제를 열고 '힘센 동기회로 거듭날 것'을 결의했다.

한편 클럽회와 지역회도 도약을 위한 모임을 열고 우정을 재확인했다.

### 클럽별 단합회

△26악(산악회)=8월15일 배내골계곡에서 피서를 하면서 산악회의 발전을 위해 토론.

△26테(테니스회)=8월7일 제28회동기회와 친선게임을 가진 후 하단오거리에서 품잡어 파티.

△26골(골프회)=8월10일 동부산 c.c에서 더위를 이기고자 새벽부터 강행군.

△26기(기우회)=8월14~15일 이틀간 피서를 위한 수담.권해국 동문도 참석.

### 지역회 단합회

△사이육(사하구지역 모임)=9월 21일 오후 7시 '강촌가든'(40회 백창봉 동문 운영)에서 우정 나눔. 앞서 8월17일 명지에 있는 '금호횃집'에서 도다리회와 소주 파티. 2차로 로바다야까에서 병맥주, 3차는 끼리끼리. 또 8월 1일은 체력단련 겸해 부곡C.C 모임을 가졌다. 이날 저녁에는 부인 초청 노래자랑.

△월우회(수영 남 해운대구지역 모임)=6월28일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에서 부인들과 같이 저녁식사 및 소주 파티. 식사 후 부인들은 별도로 단합대회를 위해 열린음악회를 가졌으며, 동문들은 우천에도 불구하고 모두 지용섭 동문 집으로 직행해 언제나 준비된 양주로 입맛을 돋구었다.

# 강풍·졸음·화산재 속 12시간 '지옥행'

일본 주재 기간 동안 후지산 등정을 해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오다 이근배 선배(24회) 귀국 송별회 겸 단합회 저녁식사 자리에서 산우회를 결성했고 내가 '총대'를 매기로 했으며 7월30일 후지산 등정에 나섰다.

## 일본 후지산 정복기

### 강 병 철

제29회  
Greenwich NatWest - Director

산우회 초대 회장으로 뽑힌 이종명(19회·KR동경사무소장) 선배와 한승동(29회·한겨레신문 동경특파원)군, 그리고 필자 등 셋이 저녁은 생략하고 가벼운 기분으로 신주쿠(新宿)에서 이날 7시30분 버스를 타고 가서 밤10시에 산행에 돌입했다.

후지산 정상 높이가 3,776m라고는 하지만 출발지인 가와구찌고고고메(河口湖五合目)가 이미 2,314m라 정상 정복은 북한산 두어번 갔다오는 정도의 정성만 있으면 됐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에 휘황찬란한 보름달까지 산 전체를 훤히 비추며 우리를 맞이했다.

나나고메(七合目)까지는 문체없이 진군하여 합락에 성공, 새벽 0시20분 잠시 물 한모금 마신 후 이 회장의 지시로 하치고메(八合目)에서 만나기로 하고 각자 실력에 맞추어 속도를 내기로 했다.

그러나 반도 못가서 일이 꼬였다. 출고 배고프고 졸리고...

중간 어디에선가 정신 못차리는 나에게 이 회장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까마득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

"하치고메가 아직 멀었나? 지금 몇시고?"

"새벽 2심니다. 혼하치고메(本八合目)까지는 아직 1시간40분은 더 가야 되고, 정상까지는 2시간30분을 더 가야 합니다."

"한 기차는 어디 갔노?"

"곧 뒤따라 안 오겠 심니까."(사실은 한참 먼저 갔는데)

졸음을 참고 간신히 혼하치고메에 새벽 4시경 도착했다. 이 회장도 승동이기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썩썩 부는 찬바람만이 나를 맞았다. 일출에 상시시간인 4시50분경까지는 충분히 정상을 공략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혼하치고메를 베이스캠프 삼아 꾸그리고 앉아 약 10분간 끄떡없게 즐겼다.

시간은 흘러 새벽 4시20분, 다시 정상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내 몸이 아니었다. 두어 발짝 걸으면 속이 뒤틀려 땀이 자꾸 올라 오려 했고 눈은 계속 감겼으며, 숨쉬기는 더욱 힘들었다. 결국 정상을 5백여m 앞두고 일출을 맞

## 東慶會 결사대(?) 3명 '간도전' 계걸음 끝에 정상 올라 일출 맞이 '거대한 시막' 같은 '하산길' 더 험난

이할 수밖에 없었다.

운이 좋았다. 구름 한 점없는 날씨, 일출은 장엄했다. '조국의 하늘엔 조금 더 머물다 가시길' 부질없는 기원을 해본다.

정상까지 나머지 5백m는 생애 가장 힘든 계걸음으로 갔다. 나는 무려 1시간30분을 소비했다. 5발짝 걸고 1분 쉬고... 주변은 마치 벤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모습들.

거적대기 한 장도 깔지 않고 길(?)거리에서 꾸벅꾸벅 조는 멀쩡한 아가씨, 흠뻑땀에 기대어 긴 한숨으로 심호흡을 대신하는 중년신사, 네



동경회가 산우회를 결성하고 일본 후지산 정복에 나섰다. 사진 오른쪽부터 한승동(29회) 이종명 동문(19회)과 필자.

# 등대회 '활성화고동' 올렸다

### 회보 재발행·회원수첩 제작 등 간사회 열어 발전방향 모색



등대회 (해운 항만 수산관계 동문 모임)는 97년 창간한 이래 제152호까지 발행하고 잠정 중단된, '등대회'를 8월31일자로 재발행한 것을 계기로 최근 소장 국면에 놓인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등대회는 8월10일 낮 12시 부산 중구 중앙동 '회영루'에서 김용호 회장(14회·용호선박 회장)을 비롯, 각 동기회 간사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사회 정례회의를 열고 잠정적 중단상태에 있는 '등대회'를 재발행하고 회원수첩도 제작하기로 결정하는 등 등대회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김용호 회장은 '등대회' 재발행 행사를 통해 "우리는 '회보'라는 매개를 중심으로 다시 뭉치고 등대회를 활성화시키자"며 "모든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등대회'는 송영춘 동문(23회·삼산보세장 치장 상무이사)이 다시 편집을 맡아 제153호부터 지령을 이어가게 됐다(4×6매판 6쪽).

한편 사진이 붙여진 회원수첩을 위해 노경보 동문(33회·대경통운)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동문 개개인을 찾아다니며 인물사진을 촬영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현재 등대회 회원은 한국선급협회검사관인 김주호 동문(6회) 등 1백99명이다.

# 제12회동기회 "경사났네"

### 김성찬 모교교장 등 7명 교장·교감 영진

#### 축하월례회 개최

제12회동기회에 경사가 났다. 한동안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던 동기회는 최근 김성찬동문이 모교 경남고 교장으로 발탁된 것을 비롯, 부산시내 교직원 7명이 교장 및 교감으로 영진해 활기를 찾게 됐다.

이에 따라 동기회는 이용언

회장 주재로 9월14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도호텔 앞 일식집 '일번지'에서 김성찬(경남고 교장) 김석용(대동중 교장) 김용호(반여중 교장) 송세문(다대중 교감) 정영철(남성초등교 교장) 하일기(브니엘여고 교장) 한춘배동문(부산과학고 교장) 등 7명을 초청, 축하월례회를 열어 축하를 나눴다.

# 경고생의 자존심 추억의 '똥구두'

학창시절 꿈꿨던 우리 경남고 졸업생들은 지금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 저마다 경고 다닐 때의 갖가지 추억들을 가슴 속에 새겨놓고 있다.

아름답고 독특한 디자인의 배지와 이름표, 아주 반듯하게 생긴 모표, 특히 여름에 입었던 푸른색 상의... 이것들이 우리들의 몸에 착용했던 징표였다면 등그런 모양의 원형교사, 다소 좁아서 답답했던 운동장, 너무 기팔라 험악대면서 기어올라가야 했던 정문 앞 등교길, 골초들이 담배 피우기 알맞았던 학교 뒷산 숲속 등은 우리들의 꿈을 한껏 키워줬던 주변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하나 간과했음을 자백하지 않을 수 없다. 현명한 독자라면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금방 눈치챈 것이다.

필자는 단언한다. 경고의 상징이 원형교사였다면 경고생의 상징은 '똥구두'였다. 특히 50, 60년대에 경고를 다녔던 동문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이다. 그때 우리들이 즐겨 신었던 군화의 이름은 '똥구두'가 아니라 '똥구두'라고 발음해야 제격이라는 데는 여러분들도 동의하리라 믿는다.

과연 똥구두는 우리들에게 무엇이었던가. 똥구두라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은 30~40년 전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가슴마저 두근거리는 동문들이 많다는 것을 필자는 안보아도 알 수 있다. 필자 자신이 그렇기 때문이다.

경고에 합격해서 입학하 하면 며칠 되지 않아 아주 특이한 현상을 알게 된다. 2, 3학년 형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 운동화가 아니라 다 떨어진

군화라는 사실 말이다. 그때부터 우리는 경고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경고생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들에게 미래의 마누라였던 부산여고생들도 똥구두를 신지 않은 경고생을 사이비로 보았을 정도였으니까.



**이 재 일**

제18회 전 서울신문 과학정보부장

우리들이 즐겨 신고 다녔던 똥구두는 우선 낡을수록 오히려 빛(?)을 발했다. 낡았다는 것은 그만큼 관록이 붙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나.

똥구두를 신는 데도 나름대로의 멋을 창출했다. 우선 현역 군인들처럼 전투자세로 끈을 꽉 조이는 것이 아니라 걸을 때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헐렁하게 매야 한다. 질질 끌리는 군화소리, 그것은 경고생임을 알리는 신호음이었다. 군화 원구멍 몇 개에는 아예 끈을 끼우지 않았고 발등 댕개는 일부러 밖으로 내어 놓았다. 아예 군화 발목을 잘라서 신고도 했다. 그래야 신기에 편하고 쉽게 벗을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똥구두가 경고생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 필자가 과묵한 탓인지 정설은 잘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짐작이 가는 대목이 있다.

우선 학교의 위치 문제이다. 아름다운 구덕산 기슭에 자리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등교하기에는 무척이나 힘이 들었다. 정문 입구 도로 경사가 45도는 족히 될 것이다. 아침에 학교가는 일이란 말이 등교이지 사실은 등산이었다. 그래서 피를 낸 것이 군화가 아닌가 싶다. 재까만 '배구두'보다는 군화가 높은 길 오르기에는 훨씬 쉽다는 사실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원형교사와도 무관하지 않은 듯 싶다. 9, 10회 선배들의 말씀으로는 당시 원형교사를 짓느라 공부는 뒷전이었던단다. 그때 운동화가 불편해서 한두 사람이 현 군화를 사서 신던 것이 유래가 되지 않았나 싶다. 아무튼 이들 몇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정답이라는 생각이 든다.

경고생들의 전매특허품이었던, 그래서 자부심을 한껏 북돋워 주었던 똥구두, 현 것이든 새 것이든 한 켤레 사다하면 하늘을 나는 것 같았던 똥구두, 걷는 소리만 들어도 못여학생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똥구두, 그것이 부러워 일부 지각없는(?) 부고생들이 흉내내서 신었던 똥구두, 구두신고 다니는 동아대생들의 기를 죽였던 똥구두.

필자는 경고시절 모두가 애송했던 청마 유치환의 시 '깃발'에서 따온 한 귀절을 빌리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똥구두,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저 아련한 추억을 되새기며 걸어오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발자국.'

# 삶의 질을 높이는 길

95년 1월25일 정부는 '세계화의 구상'을 발표하면서, 세계화를 모든 분야의 국정지표로 삼았다. 우리 모든 국민과 국가의 생존·발전을 위한 전략임을 천명하면서, 이 전략의 기본목표는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고, 그 궁극적 목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하였다. IMF 이전까지 우리는 경제성장률이 연간 7%이상이었고 국민소득수준도 1만달러를 상회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삶을 구가하였다. 풍요로운 유형의 물질적 삶을 구가한 것이다. 정말 삶의 질이 높아진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IMF수준으로 후퇴시킨 주범인 것이다.

선진국의 삶의 질을 100점이라고 했을 때 한국은 4점이라는 어느 연구보고가 있었을 때 아마도 놀라지 않은 사람이 드물 것이다. 삶의 질(Q)이란 풍족한 의식주생활과 같이 물질적수준(A)만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숭고한 윤리와 도덕을 바탕으로 한 무형의 정신적 삶(B)과의 사이의 균형과 조화로서 결정되는 것인 줄(Q=A·B)몰랐기 때문이다. 우리는 풍족한 의식주생활에 도취한 나머지 높은 양식과 규범의식을 경시하였던 것이다.

일본과 미국에 머물렀을 때의 경험에 의하면 그들은 어릴 적부터 도덕과 윤리교육에 철저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타인에게 배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교육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의식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것이 개인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로 발전하여 우리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 것이 아닐는지 모르겠다.

정부와 기업을 위시한 모든 조직이나 집단의 경영의 성과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좌우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경쟁력도 삶의 질도 지도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술선수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가 이기적이거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면 경쟁력도 삶의 질도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들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총체적인 삶의 질은 우리들의 의식이나 정신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숭고한 윤리와 도덕을 바탕으로 한 무형의 정신적인 삶이 풍요로운 유형의 삶의 질보다 더욱 중요함이 여기에 있다 하겠다. 우리 모두 책임을 통감하자.

### 용마논단



**오 종 석**

제11회 동기회장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

**지도자의 도덕성·윤리성 높으면 높을수록 풍요로운 정신적 삶 가능**

## 1999 경부친선 서울초청 골프대회

1. 예선경기 : 10. 7(木) 10:30 태영 C.C(10개조)
2. 단합대회 : 10. 7(木) 19:00 옹고집 스포츠킴
3. 본선경기 : 10. 8(金) 08:00 태영 C.C(10개조)
4. 시상식 : 10. 8(金) 14:30 태영 C.C 그릴

※ **今世紀** 마지막 경부친선경기에 **同期會員**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재경일육골프회장 **孫石植**  
사무국장 **金正則**

## 1999 동기회 임원

회 장 **洪品吉**  
본부부회장 **宋圭政**  
수석부회장 **姜鍾國**  
감 사 **鄭榮一**

사무국장 **玉潤錫**  
회비납부계좌  
부산은행 022-12-020772-3  
옥윤석

회 장 **薛熙淳**  
재경부회장 **洪龍燦**  
수석부회장 **梁和胤**  
감 사 **車在翊**  
**許鍾旭**

사무국장 **辛銀祚**  
회비납부계좌  
한빛은행 440-08-023050  
설희순



제28회동기회 서울 부산 동문들이 감천 황악산 정상에 올라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제28회 첫 경부합동산행대회 30여명 황악산서 추억만들기

제28회동기회 부산 서울 동문 30여명이 경북 김천 근교 황악산(1,100m)에서 제1회 경부합동산행대회를 열고 추억을 새로 만들었다. 제28회는 9월12일 황악산에서 경부합동산행대회를 처음으로 열고 '왕성한 동기회'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박병찬 회장을 비롯한 서울 동문 10명이 김천역에 먼저 도착한 부산의 이원철 산우회장과 동문 20명으로 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일행은 김천역 앞에서 금산약국을 운영하는 허영철 동문이 준비한 대형 버스로 직지사로 향했고, 허동문이 점심도시락까지 챙겨줘 즐거운 마음으로 산행을 시작했다.

무척이나 후덥지근한 날씨 탓(?)

에 비지땀이 흐르자 이구동성으로 그동안 마신 술이 모두 땀으로 빠져 나 온다며 곳곳에서 야단들이다.

오후 2시경 정상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동문들은 경사가 급한 하산길에서 연신 "조심해라!"를 연발.

반백들의 합창 탓에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부러운 눈초리로 힐끗힐끗 쳐다보기도 했다.

하산 후 직지사 경내를 돌아보고 버스를 기다리며 특별히 김이철 김치운 두 동문에게 민폐(?)를 덜 끼친 공로로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한편 하산 도중 김이철 동문이 다리에 쥐가 나서 어쩔 줄 몰라하자 한 의사인 어청우 동문이 침 한 방으로 해결, 위기를 넘겼다. 허 동문의 안내로 삼점살과 타이타닉주를 나누며 대미를 장식했다.

### 일육산악회 "왕성"

올 8월~내년 7월  
1년 산행계획 마련

제16회동기회 일육산악회 활동이 왕성하다. 일육산악회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관계없이 매월 첫째 일요일을 정기산행일로 정해 먼 곳에 있는 산을 타고, 여타 일요일은 금정산을 비롯해 주변 산을 오르고 있다.

김종국 회장의 극성스런 리더쉽과 서태복 산행대장의 특출한 인솔력 등으로 회원들 사이에 재미가 술술 일고 있다.

특히 강 회장은 올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 산행계획을 세워 각 회원들에게 예고해 주는 성의를 보여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일육산악회 연간 산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 (1999년)
- ▶8월: 경남 함안 여항산
- ▶9월: 경남 밀양 재약산 수미봉(108m)~표충사
- ▶10월: 경북 함흥 비슬산(1084m)~유기사
- ▶11월: 경북 청도 남산(870m)~죽림사
- ▶12월: 경북 경주 금오산(일명 남산 495m)~이외박물관 및 고적 답사
- (2000년)
- ▶1월: 경북 구미 금오산(977m)
- ▶2월: 경남 의령 한우산(764m)~일봉사
- ▶3월: 경남 고성 거류산(571m)~정지사
- ▶4월: 경남 창녕 회왕산(757m)~관룡사 중주
- ▶5월: 경남 거창 의상봉~별유산(1046m)
- ▶6월: 경북 영덕 팔각산~옥계계곡
- ▶7월: 경남 밀양 구민산(786m)~통수굴.

### 수수꽃다리

오래 전 잊혀져버린 우리 꽃나무 이름 수수꽃다리를 아십니까. 물푸레나무과로 사오철경 연보라색 꽃을 피우곤 어느 봄날 아침 안개비에 한꺼번에 저버리는, 어릴 적 학교 교정에 두서너 그루 심겨져 우리 기억 저편 아득한 향기로 남아 있는 나무 수수꽃다리를 아십니까.

미국 시인 엘리엇의 시 '황무지'에 나와 해마다 사할이면 신문지상에 한 번쯤 언급되는 나무. 책에서도, 아이들 교과서에서도, 유행가 가사에서도 너무 당연하게 리얼락으로 불러워지고 기어이 담배 이름으로 둔갑해버린 리얼락이 식물도감 한 쪽 구석으로 사라져간 이름, 우리 이름으로 수수꽃다리란 걸 아십니까.

### 영남알프스 운문령계곡 정복

#### 이철산우회 107차 산행

제27회동기회 이철산우회 제107차 산행이 9월12일 영남알프스 운문령계곡에서 장기남 산행대장과 김현수 총무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날 산행은 오전 10시 들머리인 청도군 신원리 삼계마을에서 시작, 배너미재~큰골~복숭아골~아랫재~밀양 남명리 얼음골 입구까지 이어졌다.

일행은 신원천 징검다리가 물에 잠겨 등산화를 벗기 싫어 1백m를 우회했으나 강태영 인솔대장만 개울을 그대로 침범침범 걸어서 건너갔다.

신원천 냇가를 따라 올라간 일행은 숲 속을 지나 장엄한 나선폭포를 만나 폭 쉬고 다음 배너미재에 닿았다. 파인애플과 밀감 통조림으로 갈증과

허기를 달랜 후 30여분 더 내려가 가지산과 운문산 사이의 계곡인 복숭아골을 만났다.

이곳에서 즐거운 점심시간을 맞았고 일행은 윤지환 동문의 '지향표' 얼음막걸리와 강태영 동문의 '태영표' 얼음소주로 피서파티를 벌였다.

1시간 넘게 휴식을 했다가 1시간 30분 걸려 아랫재까지 올라갔다. 건너편에 천황산이, 좌우에 가지산과 운문산이 버티고 있다.

하산 시작. 40여분 걸려 삼양마을에 내린와 등도량농원서 춘국수로 또 배를 채운 다음 얼음골로 잘 알려진 밀양 남명리에 닿았다. 대기 중인 승합차에 올라 장남이라 무척 봄비는 언양장터를 빠져 나와 온천장에서 목욕 후 해단식을 가졌다.

#### 장편소설 '장군의 딸들'

변수섭 (13회) 지음

미국 뉴욕에서 소설가로 널리 알려진 변수섭 동문(14회·사진)이 장편소설 '장군의 딸들'을 출간해 다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변 동문은 '장군의 딸들' 서문에서 "정치도덕관이 다른 나라에서, 국외자로서 군사문화를 창출한 그들의 비행과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고 있는가를 조명해 본 것"이라고 이 장편의 골격을 전하고 있다.

'환영만찬', '추방', '동질성', '혈연' 등 모두 12장으로 구성된 이 장편은 제감을 느끼

#### 장편소설 '겨울제비'

이종명 (15회) 지음

외과전문의로서 부산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종명 동문(15회·현대병원 의무원장·사진)이 최근 장편소설 '겨울제비-다다리 산책'을 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겨울제비'는 몰락한 왕회장이 불륜의 늪에서 '인생환혼'을 판조하고 이율배반적인 성의 포로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겨울...'은 제1부 '술래잡기', 제2부 '먹느냐 먹히느냐', 제3부 추락, 제4부 샌프란시스코의 명암으로 얽여져 있다. 이 책은 감칠맛을 내는 문장력으로 재미가 물씬겨려 단숨에

#### 장편소설 '장군의 딸들'

75년 미국에 건너간 변 동문은 뉴욕대에서 수학했고 '한국수필'로 등단했으며 뉴욕 한국 일부 신춘문에 소설부분에 당선됐다.

장편소설로는 '들쥐 새끼들'과 이번엔 펴낸 '장군의 딸들'이 있고 저서로는 '완전한 직장인'과 '유기화학 명명법' 등이 있다.

도서출판 '지혜네' 펴냄. 값 8,000원.

#### 장편소설 '겨울제비'

읽어내려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소설 끝에 '남녀, 그리고'라는 표제로 진로실을 찾아온 색스관련 환자들에 얽힌 '나이순으로 덤벼야지' 등 24편의 삽화가 흥미를 더욱 유발시키고 있다. 단편 '달중만전(達仲曼傳)'으로 대미 장식. 이 동문은 일본 모치에서 태어나 부산의 대와 대학원을 졸업(의학박사 학위 취득)한 후 연세대 의대에서 수련했다. 부산대 의대 조교수, 홍콩대 퀘내리 펠로우, 대동병원 봉생병원 등에서 의무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현대병원 의무원장과 연세대 의대 외래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도서출판 '빛남'서 펴냄. 값 7,800원.

#### 주온픽스 포토텍

OHNPAX PHOTO-TECH CO., LTD.

슬라이드/흑백/네가와이드 종합 전문 현상소

작품사진전문

대표이사 박龍一 (16회)

부산 중구 중앙동 2가 8 (주택은행 부산지점 옆)

TEL. (051)245-1537~8, 1213~4  
FAX. (051)245-1210

#### 코디 인터크디자인(주)

코디인터크(주)는 인테리어 디자인과 전시디자인의 NEW LEADER입니다.

입 무

인테리어 설계, 시공  
국내 해외전시 설계, 시공  
이벤트기획, 옥외광고/제작  
자동차 터네티블 판매/임대  
박물관 쇼케이스 판매

-의장연허 업체  
-해외 옥타늄 서비스 파트너사(OSPI)  
-미국전시자협회 회원사(tssa)

대표이사 오형권(28회)

· 서울본사: 강남구 대치동 943-12 금원B/D 5층  
TEL (02)568-7373 FAX (02)568-7478  
· 부산지사: TEL (051)442-5654  
FAX (051)442-4178

#### GOOD BYE DISC ⇨ 에어트랙

의사가 개발한 목·허리 『디스크 치료기』

에어트랙 종류 3가지

- 목-실내용(101)    ■허리-실내용(401)

적응증 디스크(추간관탈출증), 척추관협착증, 염좌, 손·발 저림현상, 외형성척추염, 디스크 수술을 받으신분

특징점 화물중시 요통 및 연변이 대외부, 종아리, 발, 발가락 등의 방사통을 즉시완화 시키는 개인 휴대 전문치료용, 원인치료용

■허리-신체용(501)    가격: ₩150,000

부모님 효도선물용,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 출산후 요통/산후조리/가사일에 힘드신 주부님 공부하는 학생, 운전기사분께 좋습니다.

보안복지부 허가 제97-73, 74호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제 98-379, 380호  
한국·미국 발명특허 획득  
미국 FDA 등록 ER NO. 84104  
스페인, 러시아, 대만 발명특허 획득  
세계각국 발명특허출원 중

(주)에어트랙 의과학연구원 부산점

중구: ☎245-4165-6    FAX: 245-4167  
사상: ☎319-2060    FAX: 319-3090

대표: 강 수 경 (21회)

동문가족 여러분께 우대해 드립니다.

\* 1월 2~4회 적용, 1회 적용시간 20분

병원에서 디스크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실에서 견인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은 이제 집에서, 외출중에, 직장에서, 일할 때, 스포츠-레저 중에도 언제나 허리·목을 치료하고 예방할수도 있습니다.

인간지역동창회

高在詒(1회)=부천전문대학 퇴직 후 아들 회사 일을 돕고 계십니다. (자택)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337-5. 02-815-6975
姜信培(5회)=경일포장 대표. 032-698-1451
임채식(7회)=(자택)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2 보람마을 아주아파트 1104동 1702호. 032-324-8542
金世坤(8회)=김세곤회계사무소 대표. 032-519-4344
박현재(10회)=삼진섬유산업(주) 회장. 032-819-5500. (자택)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70-125 동아아파트 20동 604호. 032-528-8374
鄭 薰(10회)=(자택이사)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566-1 부천아파트 3동 502호. 032-655-2419
李惠珍(10회)=환경일보 경인지역 본부장. 552-0042
鄭亨道(11회)=경기도 가평구 외서면 청령리 청구아파트 102동 1601호. 요양차 내려가 계신다고. 빠른 회복하시길
尹澤基(12회)=부천 전기공사협회. 032-652-8860. 5월 5일 부천 신주에식장에서 장녀 결혼
金宗燮(12회)=건화엔지니어링 감리부. 02-5287-500
金成伯(12회)=동부화재 삼호대리점 대표. 02-521-8142. (자택)서울시 구로구 구로1동 중앙하이츠아파트 5동 1507호. 02-851-2430
李泰煥(13회)=(자택)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4-99 동부골든아파트 203동 2002호. 02-625-0838
金時和(13회)=(자택)서울시 서초구 반포2동 한신아파트 15차 44동 201호. 02-599-2001
崔允洛(13회)=수원 화성 용인지역 동창회 회장. 삼성생명 부천법인. 017-221-2471
傾昇輝(14회)=유원금속 대표. (사무실 이전)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내포리 213-3. 0341-981-3400
金永大(14회)=인천항 도선사회. 032-883-8111. (자택)인천시 중구 항동 7가 27 비취맨션 4동 1312호. 032-881-8990
김창규(15회)=부천 용마회 회장. 346-5995
최광수(15회)=인천항운(주) 대표이사. 032-884-3691. (자택)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21 큰대림아파트 115동 1504호. 0344-912-060
李德一(15회)=(주)흥진산업 부사장. 0661-723-1578
李智模(15회)=7월 21일 부친 별세. 사계철식품(주) 상무이사. 0343-49-3219
辛政雄(15회)=(주)진천항운 부장. 032-888-7911. 9월 3일부터 약 20일간 중국출장
南元鐸(16회)=중앙유통 대표이사. 032-655-6571. (자택)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신동아아파트 407동 308호
崔勝南(18회)=LG 화재해상보험 청파대리점. 02-736-0360. 019-559-5939
具滋旭(18회)=(자택)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99 우성캐릭터아파트 2동 302호. 02-572-4067
鄭圭泳(19회)=한국은행 인천지점장. 032-880-0114. (자택)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아파트 라동 605호. 02-533-6267
李潤弘(19회)지현건설(주) 부사장. 032-437-0885
南丙根(19회)=인천지방방법원 집행관. (자택)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16동 709호. 02-593-7458

白完均(20회)=5월 15일 탐웨딩에서 장녀 결혼. 02-481-6171
曹旭鎭(20회)=일신 다도해 대표. LG백화점 근처 많이들 찾아 주세요. 325-7778
徐德雄(20회)=(주)대성하이테크 영업이사. 전자파 방지 콘택터 제조. 860-5171. 017-322-5611
玉英錫(20회)=로렌스시계공업(주) 회장. 032-676-1661. 10월경 서울로 완전히전 한다고 함
崔光秀(20회)=인천항운(주) 대표이사. 032-884-3691. (자택)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21 큰대림아파트 115동 1504호. 0344-912-0609
金聖又(21회)=김성우치과의원 원장.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032-651-7605
金鍾喆(21회)=한국수출보험공사 인천지사장. 수출하는 동문들 많은 연락 바랍니다. 422-2713
吳庠烈(22회)=LG화재 용마대리점 확장개업.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동문 특별 할인. 032-514-0031
孫泰炯(23회)=인천세무서장. 770-0201
文昌鎬(23회)=신진화학(주) 대표이사. 032-816-0325
李大雨(23회)=한비기계(주) 대표이사. 내외경 연마기 제조업체 설립. 032-577-5211
文權鎬(24회)=한일생명보험(주) 인천지역대리점 관리부장. 032-433-0944. (자택)부천시 소사구 소사2동 91-68 성지아파트 3동 501호. 032-347-8491
鄭宰奉(25회)=정이비인후과의원 원장. 032-671-3826. (자택이사)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 333 대림아파트 101동 1308호. 02-648-1760
鄭聖模(25회)=대우자동차 특판팀 차장. 자동차 구입 계획 있으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509-4285. 019-378-3229
김대규(26회)=부평 용마회 회장. 519-6276
朴尙容(26회)=우성해운(주) 수입부부장. 02-398-0501
徐基錫(26회)=전 인천지방방법원 판사에서 9월 1일자로 헌법재판소를 영전
朴俊珪(26회)=경인지역 동창회 총무. (주)준 코퍼레이션 대표이사. 032-5264-114. 016-327-9887
尹大洙(27회)=경인상제(주) 대표이사. LG바닥대리점 개업. 519-0726
文奎相(27회)=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032-421-8333. (자택)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8동 404호. 02-3482-4765
金相宇(28회)=(주)한화 중앙연구소 사업운영실 실장. 032-460-1510. (자택)인천시 남동구 만수2동 5-305 삼부아파트 바동 401호. 032-469-8357
張義哲(28회)=대우자동차 부장. 032-520-3682. (자택이사)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현대아파트 105동 1905호. 032-466-7837
한효용(30회)=부평 용마회 총무. 822-4700
金正洪(30회)=개인택시.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필요하실 때 불러주세요. 011-244-9616
趙在盛(30회)=대우전자(주) 연구소 무선통신개발팀 차장. 0343-428-5302
曹大權(30회)=삼성생명 신부천지점 지점장. 032-665-8982. (자택)

어디서 무엇을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삼성아파트 102동 302호. 02-459-7304
李建雨(30회)=빅타임 실내골프연습장 개장. 부평 농협로타리 병원지하. 522-5668
嚴光慧(30회)=현대자동차 주안영업소 과장. 032-865-4111
朴商赫(30회)=신진화학(주) 상무이사. 032-816-0325. 금대신 티타늄을 이용한 도금기술 개발로 영업에 바쁨
서상천(31회)=부천 용마회 총무. 017-322-1921
蘇祐鉉(31회)=소사구청 환경위생과. 032-345-6111. (자택)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225-4 건안빌라 1302호. 0345-403-3974
崔相主(31회)=동아일보 광고부 차장. 02-361-0777. (자택)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15-4. 032-671-2328
李相晉(33회)=국민은행 주안남지점. 438-4230
文致皓(34회)=Korea Press 이사.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17 Korea Press 빌딩. 02-2275-6421
洪元錫(37회)대풍종합가구 대표. 사무용 가정용 가구 필요한 분은 연락바랍니다. 888-2452

등대회

金容浩(14회)=등대회 회장. 용호선박(주). 051-808-7871
金靑秀(14회)=장영해운(주). 051-462-9331
金和玉(14회)=건영종합개발. 051-746-4611
李吉尾(14회)=태성실업(주). 0525-32-1271
李孝根(14회)=051-627-4967
金昌善(20회)=등대회 총무. KAS총상. 051-463-6780
宋永春(23회)=(주)삼산보세장치장. 051-466-6526
全雙泰(25회)=세계손해사정(주). 051-461-0765
裊在洪(27회)=고려검정공사. 051-463-4508
金泰浩(29회)=(주)서광트랜스맥스. 051-469-3370
安靑洪(29회)=고려종합국제운송(주). 051-466-4770
卞聖元(31회)=051-522-9686
黃文燦(32회)=철성국기사. 051-254-9500
金正錫(33회)=KOLOS 해운 항공(주). 051-469-6656
金泰均(33회)=대한통운. 051-640-6300
盧京甫(33회)=051-636-3002
金康鶴(35회)=GOTO EXPRESS(주). 051-441-8072
蔡仁錫(35회)=HAPAG LLOYD. 051-463-6111
金泰英(40회)=(주)국보. 051-462-3631
崔夏榕(40회)=대한통운. 051-640-6228

제 7 회

金思遠=다년간 동기기 총무로 수고하다가 지난 9월 10일 별세
崔千圭=부산시 중구 동광동5가 26-14 051-462-0396

제 8 회

金時炯=8월 24일 부친 별세
李相軾=8월 30일 오후 4시 부산고육대학교 소극장에서 정년퇴임식

姜聖郃=8월 15일 모친 별세
權舜杰=8월 2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장남 용군 결혼
金太鏞=부인 최승현교수가 8월 1일 부로 이화여자대학교 음대 학장으로 취임
李鉉文=7월30일 부친 별세. (자택이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44 무지개마을 신성빌라 102동 201호. 0342-717-8788
丁奎轍=8월14일 북한산 등반중 심근경색으로 별세. 고향 남해 창선가족묘지에 안장

제 9 회

朴暉錫=엄궁중학교 교감을 끝으로 퇴임.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元重喜=이사벨여고 교감을 끝으로 퇴임. 동백장 수훈
鄭 錄=대한애수교 목사. 보광고등학교 교감을 끝으로 퇴임. 동백장 수훈
金丁求=경일중학교 교감을 끝으로 퇴임. 동백장 수훈
金英國=진영여자고교 교감을 끝으로 퇴임. 동백장 수훈
崔海洙=창녕여자고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퇴임. 석류장 수훈
沈順奉=안양중학교 교장을 끝으로 퇴임. 동백장 수훈
鄭鎬石=대성초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퇴임. 동백장 수훈
金鍾圓=부산대학교 인문대학장. 박물관장 역임중 정년퇴임
趙石武=8월20일 부친 별세
權鳳憲=(자택이사)부산시 남구 용호3동 377-1 동보빌라 A동 101호
金昌局=김창국피부비뇨기과의원장 051-809-5858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2동 490-8. 10월16일 오후1시30분 롯데호텔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장남 결혼

제 11 회

金達經=(자택이사)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44-7 부곡대우아파트 109동 1102호. 051-514-0102
李相壽=8월 22일 부친 별세
沈載洪=8월 29일 울산 코리아나호텔 2층에서 장남 결혼
申允業=9월 5일 크라운호텔에서 딸 결혼

제 12 회

金明燮=서울동기회. 9월 5일 병환으로 별세
金辰在=서울 세반섬유 대표. 9월 13일 병환으로 별세
金富煥=부산시 시의회 사무처장. 시의원 시절단 인솔하고 러시아 유럽 6개국 방문하고 9월 18일 귀국
金石用=대동중학교 교장. 9월 5일 장남 결혼
金寅漢=동여자고등학교 주임교사로 지난 7월 명예퇴임. 긴 세월 2세 교육에 감사드립니다
金鍾源=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원장. 지난 무더운 8월 대구 경북 지역 동기기 월례회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朴德秀=구포여자상고 주임교사로서 지난 7월 명예퇴임. 긴 세월 2세 교육에 감사드립니다
李龍彦=동기기 회장. 동아대학병원 약제국장. 스페인 학술학회에 참석하고 9월 13일 귀국
鄭榮喆=지난 8월 남성초등학교 교감으로 승진

제 13 회

金政夫=서울 중부지방국세청장

제 14 회

曹正鉉=서울 개포세무서장을 끝으로 공직생활 마감
金長均=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1동 160-43. 02-363-7576
박동수=고향식당.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2동 582. 02-959-2857
李義雄=(자택)서울시 성북구 정릉1동 1015 강남아파트 106동 201호. 02-918-5358
金德浩=7월 7일 아들 결혼
李根夏=7월 7일 모친 별세
張八藏=7월 10일 딸 결혼
柳相鳳=7월 16일 별세
金壹泰=경일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92. 02-766-9008
朴蒼杰=M&T건설링 대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5. 02-565-0234
鄭 煥=유진산업 대표. 0331-217-8030. 8080
南昌熙=7월 21일 부친 별세
全秀信=7월 22일 빙도 별세
徐寬周=9월 4일 향군회관에서 장남 결혼
金盛夫=초가집 이전확장 개업. 02-521-2108
孫永牧=서원대 교육대학원장. 0431-261-8251

제 15 회

金光弘=9월 5일 부산호텔 예식부에서 차녀 결혼
丁 聰=9월 5일 코모도호텔 무궁화홀에서 장녀 결혼
金吉弘=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재무과장에서 부산시 감사수도 사업소장으로. 051-971-4029
朴俊哲=부산배화학교 교사에서 부산해성학교 교감으로. 051-637-6211
裊 博=하단초등학교 교감에서 영도 영선초등학교 교장으로. 051-413-5431
姜茂松=(자택이사)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2가 171-32 장미빌라 101호. 051-247-7892
朴正東=(자택이사)부산시 수영구 남천2동 삼익비치아파트 105동 501호. 051-626-0700

제 16 회

1999년 동기기원수첩 제작중입니다.
직장 및 자택의 주소, 전화번호경 회원은 동기기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051-248-0016
權起大=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육군회관에서 장녀 현지양 결혼
權命石=동현중학교 교감으로 영진. 051-586-0672~3
金武雄=(주)SEN TECH 엔지니어링 이사. 052-265-1996
金鍾石=울산세무서장 명예 퇴직하고 울산에서 세무회계사무소 개설. 울산시 남구 달동 874-3 용진빌딩 4층. 052-276-0300
金泰一=친구들의 격려에 힘입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지난 9월 27일 허부하여 부산 동기기 사무실 방문
南元鐸=(자택이사)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7-32 그랜드빌리지 303호. 02-557-2560
朴秀明=(자택이사)서울시 광진구

# 어디서 무엇을

능동 220-5. 02-447-1652  
 裴正一=수산경제신문 발행인. 02-678-3696.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40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남서울웨딩홀에서 자녀 수현양 결혼  
 邊一秀=밀양경찰서 하남파출소장. 0527-391-0112  
 徐泰福=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중국 동광동 부산호텔에서 장녀 보경양 결혼  
 薛熙淳=재경동기회장. 무한전자(주) 회장. 02-3775-1700  
 玉潤錫=(자택이사)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120-1 현대아파트 109동 206호. 051-263-2101  
 李璟煥=(자택이사)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2동 중산마을 703동 704호. 0344-976-8964  
 李孟立=9월 12일 중구 대청동 서라벌호텔에서 삼녀 문수양 결혼  
 李邦昭=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동구 범일동 크라운호텔에서 장녀 수민양 결혼  
 李良一=대암학원 대표. 02-431-4954~6  
 李正成=(자택이사)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246-4 15/2. 051-758-4136  
 李哲壽=(자택이사)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48 경남선경아파트 117동 1501호. 051-702-3189  
 林熙成=양강중학교 교장으로 영전. 02-683-9868  
 鄭相詰=(자택이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21 코오롱아파트 504동 901호. 0342-701-6291  
 朱琪珉=경남중학교 교장으로 영전. 051-256-0440  
 千光吉=(자택이사)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161-5 석산빌라 501호. 051-512-2622  
 崔根淑=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초량영업소장. 051-466-7053

### 제 17 회

朴隆彦=제일은행 도화동지점. 02-701-6082  
 權二鉉=소비자보호원 상임이사. 02-3460-3204. (자택)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대림아파트 107동 1504호. 0342-714-8611  
 卞靖雄=두산포장(주) 이사. 경기도 이천공장 공장장. 0336-639-3500  
 薛順玉=효성물산(주) 전무이사. 스타리카지사 발령 5월 출국. 002-94-74-829000  
 李興源=(주)뉴암 대표이사. 02-3474-4655. (자택)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3-13 신세계빌라 B동 302호. 02-568-0889  
 鄭海電=팬더특수지류 수입판매상사 대표 051-245-4100 10월3일 1시 코모도호텔에서 장남 결혼

### 제 19 회

南珍鉉=본부동창회 부회장. 9월 27일 부친 별세  
 申道均=서울시 동대문구 장안2동 322-3 동성빌라 201호. 02-2245-8462  
 吳泰洙=(주)코스모광업. 02-3446-4433

### 제 21 회

金鍾華=6월 29일 숙환으로 별세

### 제 22 회

李周成=국세청 조사1국 과장

### 제 23 회

金玄得=서울 송파구 방이동 223-2

경원빌딩 402호. 02-417-2358  
 朴起錄=제일건설(주) 대표이사. 032-323-4295  
 朴文度=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11-56 창대빌딩 3층으로 사무실이 전  
 朴元基=황계기원. 서울 강남 제일생명 앞. 02-562-2437  
 鄭在植=부마산업 사무실이전 입주. 02-3444-7451  
 河承壽=6월 7일 장모 별세  
 黃鍾元=(자택)서울시 가락2동 175-1 현대7차아파트 101동 406호. 02-402-9388  
 李大雨=한비기계(주) 설립, 대표이사. 032-577-5211~4  
 宋殷在=(회사명 변경)글로벌 전무이사. 02-3463-6384  
 沈秉憲=조선면옥. 제주도에서 음식점 개업. 제주도 삼도2동 1192-16. 064-723-0877  
 金眞輝=(전화번호변경)011-480-1100  
 金永穆=중소기업은행 도곡동지점장. 02-508-3981  
 劉錫山=시계나라 대표. 02-2601-9090.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1 목동아파트 603동 501호  
 李永昌=(주)파이오니아 해운항공 부사장. 017-274-1082  
 이인택=서울시 동작구 사당3동 대림아파트 12동 1201호  
 崔宰榮=목련부동산 대표. 서울 일원동에서 개업. 02-451-6100  
 河東烈=국민은행 헤미리아파트지점장. 02-401-1251

### 제 24 회

金榮泰=프라이م 공인중개사와 가법계 한잔 레스토랑을 시범단지 삼성아파트 110동 맞은편 건물 2층에 개업. 0342-703-4994

### 제 25 회

黃浩善=부경대학교 교수. 051-620-6647  
 裴錫千=경동공영(주) 상무이사. (자택)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벽산아파트 113동 1802호. 051-702-6204  
 安泰吉=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밀양지사. 0527-355-0588  
 金鍾滿=현대자동차(주) 사장영업소 소장. 051-314-3040  
 全尙泰=경매컨설팅업체 일신부동산 중개(주). 부산시 부민동 법원앞. 051-254-6789. 644-8587. 011-9525-6789  
 金銅鎭=울산지역 회장. 울산병원 일반외과 과장. 052-259-5021  
 朴巨煥=울산지역 총무. 한국카프로 락탐 환경부과장. 052-270-9790  
 韓俊錫=마창지역 회장. 창원농협공관장 66호 대표. 0551-238-5078  
 尹宗有=마창지역 총무. 한국외환은행 창원 남양동지점장. 0551-263-5582  
 金淵信=대우전자(주) 국제담당 이사. 02-360-7090  
 甘旻贊=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해청아파트 21동 303호. 02-544-6159  
 金義章=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 과수화해 차장. 02-397-5726  
 金清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7주공연립 125동 303호. 02-507-7188. 엑큐렘 부사장. 02-578-8411  
 朴相健=LG화학 전지OBU 기술팀장. 0431-261-7580. 서울시 강남구

도곡2동 개포한신아파트. 02-574-4739  
 文泰吉=(주)새한 이사. 02-3279-7041  
 李琦相=한국ASK(주) 경영관리팀 부장. 02-3289-0330  
 李基宗=경희대 행정대학원 교수. 02-961-0132  
 李贊衡=국보혜운 상무이사. 02-771-5515  
 李洪成=(주)대우 다이너스크림 채권관리 부장. 02-3468-4540  
 具滋勳=삼성자동차(주) 이사. 0331-289-7100  
 金麟=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11 목동아파트 1026동 303호. 02-651-2912. 삼양사 의료사업부 상무이사. 02-740-7390  
 金松俊=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계룡아파트 844동 1301호. 0343-93-1933. 진영전자 대표. 0339-365-2953  
 金悅會=김열희산부인과의원. 02-780-3881  
 金正泰=하나은행 지방지역본부장. 051-257-1001  
 金榮國=국제방송 교류재단 총무국 재무팀장. 02-3475-5051  
 徐局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한양아파트 118동 502호. 0343-504-3504. 서국원내과의원 원장. 0343-456-7343  
 李承玉=하나프로덕션 대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72-7. 02-543-7244  
 宋裕中=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한신아파트 112동 1807호. 02-929-6776. 범양상선(주) 영업이사. 02-316-5300  
 申水榮=(주)신안월드 대표이사. 02-563-2867.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64-7 세방타운하우스 302호. 02-543-0876  
 張大洛=석유개발공사 감사실 부장. 0343-380-2110  
 文暢俊=한빛은행 삼성센타지점. 02-752-3053. 0344-979-0900  
 金忠在=서울은행 종합기획부 부부장. 02-3709-5072  
 申成雨=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103-16 반포현대빌라 A동 103호. 02-595-4304.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02-2246-9656  
 金大煥=서울시 강남구 도곡2동 개포우성4차아파트 7동 406호. 02-577-3496. 외환은행 기업분석팀 차장. 02-3705-5480  
 尹宗有=서울시 송파구 문정2동 패밀리아파트 110동 1305호. 02-449-4283. 외환은행 창원 남양동지점 지점장. 0551-263-5582  
 李徐微=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17 그린맨션아파트 4동 501호. 0331-258-7227. 외환은행 안양지점 소매부분 지점장. 0343-446-5111  
 康壽命=육군 교육사령부 교리처장 대령. 042-820-3230.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자운대 군인아파트 501동 503호. 042-863-1805  
 朴耕立=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6주공아파트 501동 108호. 02-503-3368. 제일약품(주) 기획이사. 02-3443-6279  
 鄭宰奉=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 대림아파트 101동 1308호. 02-648-1760. 정이비인후과의원 원장. 032-671-3826  
 鄭東烈=(주)유진네트비전 대표이사 051-466-1971. 016-523-3326 부산시 남구 문현1동 390-52(11/

2). 051-633-2116

### 제 26 회

임택영=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權海國=미국에 잠시 들렀다가 왔습니다  
 李根範=7월 7일 모친 별세  
 池龍燮=7월 19일 COLEMEN 부산 경남총판 개업  
 徐耕浩=8월 9일 장인 별세  
 崔秀逸=7월 29일 모친 별세  
 李鎮鶴=서울 간세청 국장  
 南仁熙=건설교통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장. 0371-742-6236  
 李承茂=교육부 교육정책기획관. 02-735-4420. 8월 7일 모친 별세  
 咸載佑=한일건설(주) 이사. 02-527-7032. (자택)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헤미리아파트 234동 1303호. 02-403-6233  
 金靑秀=산업은행 대구지점. 053-582-0500  
 鄭大均=한진해운 뱅커팀장. 02-3770-6650  
 金珉微=신사전철역 근처 횡집 자갈치 개업.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2-9. 02-511-5551

### 제 27 회

용마 이철산우회 등반대회  
 제27회동기회 경부합동 등반대회가 오는 11월14일(일) 김천 직지사 황악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모처럼 만나 우의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체력에 관계없이 많이 참가해 주시고 교통편 예약등 문제로 10월 3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바랍니다.  
 부산: 장기남 동문. 051-528-6460. 011-872-6460  
 서울: 이종윤 동문. 02-552-2538. 019-220-6155

金安石=9월 1일자로 창원세무서 조사과장  
 卞榮詰=(주)SAKO 무역. 051-464-8742  
 崔基石=(주)태양금속 이사. 051-819-9540  
 金仁坤=동의대 재료공학과 공학박사. 051-890-1714  
 최유진=동아대 의과대 신경외과 의학박사  
 金德源=금성고 화학교사  
 李亨福=경남정보대학 조형건설학 부장. 공학박사. 건축과 교수. 051-320-1314  
 李哲=감천 소재 이철소아과의원. 051-206-3780  
 金容台=동기회 명예회장. 일월상공사 전무. 051-256-3334  
 安鍾澤=서울 서부지청 부장검사  
 李迎雨=서울고검 부장검사  
 鄭祥坤=서울 송파세무서장

### 제 28 회

金榮詰=김영철내과의원 (병원이전) 부산시 영도구 청학2동 214-42. 051-416-2002  
 朴正浩=(주)삼진아트 미주지사장  
 石安植=(주)GE 창원 부임. 0551-278-8876  
 盧文鎭=(주)삼성전자 사직. (주)대흥교역 이사. 02-3442-2600  
 姜載和=(주)제일투자신탁증권 영업기획실. 02-7269-481  
 申益模=(주)동일건축 청하주공아파트 감리단. 0351-841-7213  
 黃泰鳳=(직장)0361-244-6835.

(자택)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944 한주아파트 106동 1004호  
 劉永植=무역회사 미도인터내셔널 설립. 02-552-8863  
 朴一東=외환은행 본점 감사실. 02-729-8188  
 文八岩=(자택이사)인천시 서구 원당동 567 KAL아파트 110동 103호. 032-563-4682  
 千炳朝=(주)관세조명 (공장확장이전)0345-433-6126  
 吳亨權=(주)코디인터내셔널 (확장이전)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8-14 성지빌딩 2F. 02-568-7373  
 金明洙=(주)다영양행 (이전)02-554-3955  
 金龍元=변호사 김용원법률사무소 (사무실이전)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2가 93 대광빌딩 4층. 051-405-8864  
 李春盛=헌법재판소 연구관 검사  
 玉俊原=부산동부 부장검사  
 金仁鎭=천안지청장

### 제 29 회

趙漢旭=사법연수원 교수  
 金昇大=서울지검 남부지청장

### 제 30 회

權五鵬=부경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용당캠퍼스로 사무실이전  
 金基洙=서부산공업고등학교 서무과. 051-301-6601~2  
 金在炫=동양증권 해운대지점 지점장. 051-701-9981  
 金正雄=동래세무서 납세자신고 서비스센터. 051-550-2242  
 金虎範=건국중학교. 051-202-0966  
 都文成=수문산업. 011-869-5223  
 吳應錫=삼성증권 해운대지점 지점장. 051-609-2300  
 李相守=현대자동차서비스(주) 진주 영업소. 0593-854-8410  
 李浚星=울산세무서장

### 제 31 회

高永浩=하나산부인과 과장. 02-943-5588  
 奇昌遠=삼성서울병원 안과전문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안과 부교수. 02-3410-3564  
 李相律=롯데칠성음료(주) 신유동 팀장. 02-3473-3932  
 鄭光浩=딜라이트 대표. 02-572-4046  
 河光宇=테라정보통신(주) 대표이사. 02-424-0050  
 洪龜=동찬산업 부사장. 0345-491-8062  
 徐敏誠=(주)TEXWELL.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66-9 이레빌딩 2층. 02-525-3967  
 蔡慶洙=국방대학원

### 제 33 회

金學成=LG정보통신 차세대통신연구소 연구원. 0343-450-2947. (자택)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삼호아파트 17동 1406호. 0343-386-8331

### 제 35 회

김문성=(자택)부산시 북구 금곡동 주공아파트 207동 606호. 051-361-6212. 018-553-2505

### 제 38 회

박정민=(주)오메가통산 부사장.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52-12. 051-644-8244. 011-580-2294.



보람의 결실 ... 풍요로운 산하

결실의 계절을 맞은 산하가 오곡백과의 물결로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있다. 잦은 태풍 등으로 수년을 겪은 뒤의 결실인지라 보람 또한 크다.

롯데 '잘 나가는 투수' 박석진·박보현 (45회)

### 동갑내기엔 본관도 같고 초등서 대학까지 동기동창

요즘 '깜짝 활약'으로 잘 나가는 롯데 투수 박석진·박보현동문(이상 45회)은 본관과 생년월일이 같고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동기동창이며 올 시즌 프로야구팀 선발요원으로 동시에 발탁되는 등 '붕어빵 인연' 때문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

둘은 밀양 박씨이고 1972년 7월 19일생(양력)으로 27세 동갑내기이며 야구를 시작한 수영 초등학교에서부터 대전중-경남고-단국대를 거치면서 늘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판박이다.

특히 삼성 입단으로 고향을 떠나있던 박석진이 97년 롯데구단으로 트레이드돼 오면서 '외기러기' 박보현과 감격의 재회를 나누며 이들의 절친 인연을 실감케 했다.

이들 '붕어빵'은 롯데에서 전천후 역투로 날리고 있다. 올해 이들은 프로 4년만에 특출 튀는 활약으로 주형광 문동환에 이

### 프로야구 선발요원 동시 발탁 생사고락 같이 하는 '붕어빵 인연'

은 제 3, 4선발로 임성했고, 게임상황에 따라 마운드 허리를 보장하기 위해 간혹 중간계투로 투입되기도 한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기록도 막상 막하.

매년 생일이면 꼭 밥상을 마주해온 이들 단짝은 단 하나 틀린 점을 갖고 있다. 박보현은 장가를 들어 최근 첫 딸을 얻었고 박석진은 총각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용마가족의 성원과 함께 기대가 크다.

# 안개비·폭우 뚫고 '새우잠' 예사

제13차 소백산 구간은 겨울 석달간 심한 적설로 운행이 늦어져 많은 거리를 계획하지 않을 수 없었다.

1일째 : 98년 3월, 영주의 한 여관서 일박하고 새벽 6시경 죽령에 도착. 천제관측소~회방사에서 올라오는 곳과 만나는 갈림길~1연화봉~비로봉(1,439m)~마의태자 전설이 깃든 국망봉(1,420m)~상월봉까지의 초원지대 신성봉 갈림길~배바위 주파. 선두조인 필자와 이종태(28회) 남기태(31회)가 먼저 출발, 고치령에 닿으니 어둠이 깔린다. 30분 후 후미조가 도착해 산신각 옆에서 야영.

제2일 : 고치령 야영지~미내치~1096봉~미구령에서 중식. 어제 야영지에서 만난 혼자서 백두대간을 구간종주하는 울진군청의 함군도 우리 일행이 되었다. 각 곳산(986m)과 늦은목이, 선달산(1,236m)을 지났다. 이번 산행에는 김대원(20회) 최우정 동문(24회)이 같이 동참했다. 능선 위의 숲속에 야영지를 정하고 텐트4동을 쳤다. 남기태(31회)와 울진 함군이 물을 조달.

### 창옥봉~수리봉서 죽을 고비 정신 명주목이계곡 비경에 흘러 독도 잘못돼 되돌아오는 고행도

3일째 : 7시30분경 출발, 10시경 박달령에 도착하니 서울서 이성원(22회) 이충덕(23회) 신용도(27회) 한효영 회원(30회)이 오전약수를 가지고 우리를 맞이한다.

옥돌봉(1,242m) 도래기재 도착후 중식. 영주의 부석사 둘러보고 부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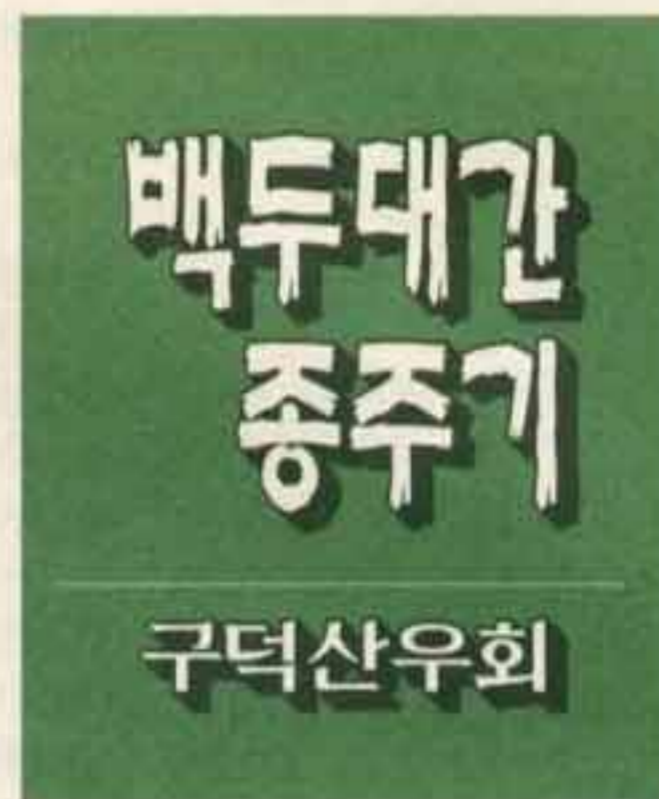
제14차 1일째 : 98년 4월 도래기재에서 출발~2시간30분만에 구룡산(1,345m) 방화선 도착.

고지령 굽 넘어가게 신성봉 직전에 물이 나와서 라면 중식. 야영은 물을 구하기 쉬운 곳이 있어 깃대기봉 직전 안부에서 했다.

2일째 : 깃대기봉~부소봉~천계단~장군봉(1,560m)~주목 굴라지 통과~사갈치의 산신각~고냉지 채소밭~대간길.

화방재에서 중식을 하고 함백산으로 향한다. 창옥봉(1,238m)~수리봉~남한에서 제일 높은 곳에 포장된 고갯길인 만항재(1,300m)~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탄전이 있는 함백산(1,572m) 자락을 올랐다.

특히 강원도 지역의 산행에는 흥천경찰서장을 자칭한 이명규(24회) 회원의 도움이 많았다. 이명규 회원의 배려로 차편으로 고현의 민박집을 향하니 부산서 유홍석(24회) 최우정(24회) 안형수(24회)



> 4 <

소백산~대리령

오기현

제20회  
구덕산우회 산행대장

김보상(28회), 서울서 이충덕 회원(23회) 등이 우리를 맞이한다. 내려오는 길에 5대 적멸보궁의 하나인 정암사와 천연기념물인 열목어도 구경.



구덕산우회 회원들이 98년 3월 13차 산행 중 청옥산 정상에서 야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일째 : 함백산 정상 밑 헬리포터장에 도착. 중합백~은대봉~두문동재~금대봉(1,478m)~비단봉 장관을 이룬다. 고냉지 채소밭이 있는 매봉산(1,303m)에 오른다. 1시간여 채소밭의 농로를 따라 피재(삼수령이라고도 함. 삼수령은 낙동강 남한강 동해로 흐르는 오십천의 발원지임)에 도착. 태백사에서 목욕을 한 후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제15차 1일째 : 98년 5월 태백산 밑 당골 휴양림 숙소를 떠나 피재에서 출발~건의령 꽃대봉~덕향산(1,070m) 자안재에 도착한 후 1박했다.

2일째 : 날씨가 좋아졌다. 큰재~황장산~대재에 도착했다. 이명규(24회) 대원이 근무처의 급한 일로 돌아가고 서울의 이승원(22회) 이충덕(23회) 이승훈 회원(24회)이 합류, 두타산으로 향했다. 두타산(1,352m) 정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박달재를 지나 청옥산(1,403m) 정상에서 야영지를 정했다.

3일째 : 부산서 김준연 서영대 이종태(이상 28회), 서울서 신용도(27회) 최임수(30회) 원종철 군 등이 야간산행 끝에 아침 8시경 청옥산 정상서 합류했다. 연철성령과 고적대~갈미봉~이기령~힘준한 상월산~원방재에 도착. 오늘의 목적지인 백봉령까지는 가기가 힘들어 이번 산행을 마치기로 했다. 그대신 정선군의 유명한 명주목이계곡으로 하산, 동해 시내에서 심야버스에 서울과 부산으로 몸을 실었다.

제16차 1일째 : 6월은 여러 사정 때문에 피하고 7월에 시작했다. 원방재를 출발~백봉령에 도착하니 오전 10시30분. 차병산 석회암 광산지대 생계령~석병산(1,055m)~두리봉(1,033m) 갈림길 감행. 밤 10시30분 삼담령에 도착하니 폭우가 쏟아진다.

2일째 : 늦은 아침 출발에 비가 내린다. 대화실산 갈림길에서 독도가 어렵다. 정복으로 방향을 잡으니 방화선 따라 대간길이 이어진다. 석두봉(982m)~화란봉~담목재에 도착. 서울의 회원 7명이 반갑게 우리를 맞이한다.

3일째 : 담목재를 출발, 목장지대~고루포기산(1,238m)~황계치 가기 전에 독도에 착오가 생겨 되돌아오는 일이 생겼다. 능경봉(1,123m) 지나 대관령에 도착하니 비바람은 더욱더 거세어진다. 이제 남은 길은 대관령에서 진부령까지다.

<다음호 계속>

## 작은 정성이 모여 큰 믿음을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분양 컨설팅

부동산 개발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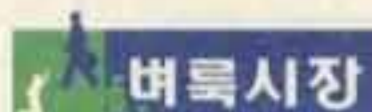
부동산 무료 법률/세무 상담

부동산 프랜차이즈

경매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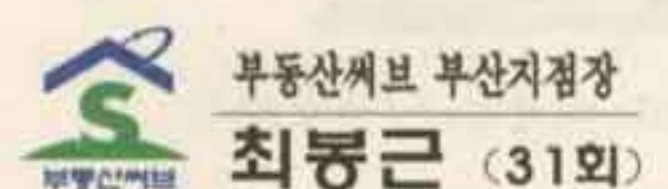
중개 서비스

부동산 거래 자금 지원



벼룩시장 대표이사 권중수 (31회)

대표전화 051)808-0202



부동산서비스 부산지점장 최봉근 (31회)

대표전화 051)802-8900